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연락처\_ 02)3299-8654 | www.khcu.ac.kr/korean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는 지구촌 시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2006년에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기준에 맞는 영역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 한국의 의식주 문화, 한류 콘텐츠 등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전문 교수진, 차별화된 교육 과정에 힘입어 예비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국어 교육 현장 종사자들이 재교육의 과정으로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
- 실재적이고 현장감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
- 다양하고 차별화된 한국 문화 교육 과정 운영
- 지도교수의 철저한 한국어 교육 실습 지도
- 특강, 학술제, 동아리를 통한 오프라인 학습 기회
- 축제, 모꼬지, 해외탐방 등 다양한 체험 및 교류 활동
- 외국어·국제지역학 분야 등 타 전공과의 복수전공 가능
- 사이버대학교 최초의 한국어 문화 교육 관련 학과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연락처\_ 02)3299-8707 | www.grad.khcu.ac.kr/gkorean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의 '글로벌한국학전공'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한국학'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 유일하게 2011년 3월에 한국학 관련 석사과정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글로벌한국학전공'은 전통적 의미의 한국학에 머물지 않고, 한국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학을 연구하고 전수하기 위해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는 '글로벌(Global) 한국학'을 지향합니다. 본 전공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글로벌 한국학과 다문화 사회의 한국을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로서 글로벌 한국학의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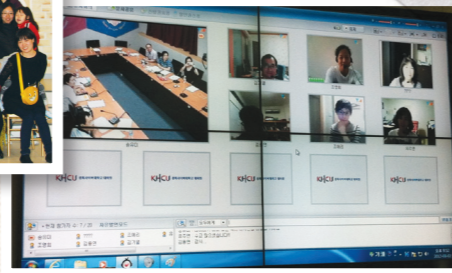
-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는 글로벌(Global) 한국학 연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 "다문화" 전문가 양성
- "한국학" 전문가 양성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
- 지도교수의 철저한 한국어 교육 실습 지도
- 온오프라인 연구 모임, 특강, 워크숍, 학술제 등
- 유일한 사이버 한국어, 한국학 관련 석사과정



2012학년도 전기 입학식 (2012. 02)



물오름달 모꼬지 (2012. 03)



글로벌 한국학 전공 화상세미나



제2회 한누리 학술제 (2012. 05)



KHCU Festival (2012. 05)



토픽 특강 및 워크숍 (2012. 07)

## 제 7 회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 참가신청 요강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본 공모전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외국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의 실천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마당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응모 기간** 2012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응모 주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감동적인 지도 체험 등의 내용을 수기 형식으로 작성)
- 응모 대상**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지도해 본 사람은 누구나 가능
- 제출 서류** 공모신청서 1부(공모전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원고 1부
-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20~30매(글자크기 11포인트, A4 용지 3~4매)
- 시 상**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700,000원)  
우수상 4명(상장 및 상금 300,000원)  
장려상 5명(상장 및 상금 100,000원)  
입선 10명(상장 및 상금 50,000원)
- 수상자 발표** 2012년 11월 중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상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 시 장학 특전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 해당)  
수상작은 수기집으로 엮어 책으로 출간
- 접수 방법** 전자 우편 접수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제출)
- 전자 우편** koreanedu@khcu.ac.kr
- 문의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Tel. +82-2-3299-8654 Fax. +82-2-959-0837
- 공모전 홈페이지** www.khcu.ac.kr/koreanedu

주최 KHCU 경희사이버대학교

주관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도서 출판 夏雨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은 국내외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사들의 교육 체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2006년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기념하여 제1회 공모전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쿠웨이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몽골 등 지구촌 구석구석의 다양한 국가의 한국어 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에서 주관하는 본 공모전은 해마다 한글날을 전후하여 실시됩니다.

제6회  
최우수상  
수상자  
수상 소감

### 민들레 씨앗을 날리며

황정숙

고국을 떠난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고향의 이미지를 담은 원색의 꽃들을 보거나 사자거리의 낙엽을 밟을 때마다 향수병이 도지고 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이국에서의 삶의 자리가 고단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남달리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교직 생활에 이어 미국에서도 20년간 강단에 서서 푸른 꿈을 안은 아이들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 중에 허락된 큰 축복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 강단 위에서 저는 날마다 고집불통의 연약한 자신을 보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며 감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글에 대한 열병은 새색시가 되어 이국땅에 첫발을 내딛은 90년도부터 심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희로애락의 감정덩이를 토해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시로 자판을 두드리며 나만의 비밀 방에 마음을 남긴 후 잠이 들곤 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후회하는 이야기, 학교 이야기, 꿈꾸는 이야기 등을 그 방에 남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반복되는 현실에 허둥대는 삶이 고달파 조금씩 지쳐갈 무렵, 스스로를 위로하느라 써본 부끄러운 글이 ‘경희사이버대학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의 최우수상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라도 같았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에 마음을 담아 관심 있게 읽어 주신 교수님들과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한 것 없이 이국땅에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노라, 때론 삶이 버겁고 힘들어 울고 싶노라, 오늘도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부끄럽노라 고백한 글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글은 어쩌면 어리석은 자신을 향한 후회와 자책, 그리고 한 조각의 격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고지에 쓴 고백은 아마도 새로운 영토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야 하는 민들레 씨앗들을 향한 저의 새 다짐과 약속이었을 겁니다.

이국땅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참 외로운 길 같습니다. 어설픈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이미 나보다 뿌리를 깊게 내린 그들 앞에서 아직도 흔들리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전달해야 하는 과제는 오늘도 무겁게 양 어깨를 짓누르지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그러는 해야 하기에 저는 오른 손을 높이 들고 그 대열에 합류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체험수기들을 대하면서 그것이 결코 나만의 외로운 전쟁이 아님을 알아갑니다. **나보다 더 많은 고민으로 학생들 앞에 서는 분들, 그리고 고국에서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모습은 다시 제 가슴을 뛰게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기회에 저도 동참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뒤뚱을 조용히 걸으며 최우수상 당선 기쁨 너머에 오히려 성큼 다가선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이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오늘부터 저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현장 속에서 큰 빛을 하나 더 지게 되었습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는 한국어 교사, 부지런함으로 늘 최고의 것을 전달하는 교사, 한 명의 민들레 씨앗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옷매무새를 새롭게 단장하고서 큰 숨을 들이킨 후, 새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빛깔기를 천천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6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기념촬영, 백봉자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수상자 시상, 축하공연



#### 01 | 2006년 제1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자\_ 최우수상 수상자 나경민(수상작-‘분망하다’와 ‘바쁘다’) 외 19명

시상식\_2006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 경희대학교 워커히움

수상작 수기집 발간\_제1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집(경희사이버대학교)

#### 02 | 2007년 제2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자\_ 최우수상 수상자 문혜원(수상작-출생에서 결혼까지) 외 19명

시상식\_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6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수상작 수기집 발간\_생생한 한국어 교육 이야기(경희대학교 출판국)



#### 03 | 2008년 제3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자\_ 최우수상 수상자 이은혜(수상작-좌충우돌 한국어과 diary) 외 20명

시상식\_2008년 11월 26일(수) 오후 6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수상작 수기집 발간\_감동을 주는 한국어 교육 이야기(하우 출판사)



#### 04 | 2009년 제4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자\_ 최우수상 수상자 김순덕(투항을 만나러 가는 징검다리),

신은영(초급반에서 살아남기) 외 18명

시상식\_2009년 11월 18일(수) 오후 6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수상작 수기집 발간\_사랑을 나누는 한국어 교육 이야기(하우 출판사)

#### 05 | 2010년 제5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자\_ 최우수상 수상자 임정원(파리에서 보내는 편지) 외 19명

시상식\_2010년 11월 18일(수) 오후 6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수상작 수기집 발간\_마음과 마음을 잇는 한국어 교육 이야기(하우 출판사)



#### 06 | 2011년 제6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자\_ 최우수상 수상자 황정숙(민들레 씨앗을 날리며) 외 18명

시상식\_2011년 11월 23일(수) 오후 6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수상작 수기집 발간\_희망을 꿈꾸는 한국어 교육 이야기(하우 출판사)

